

005 문학인의 말\_배하은 문학과 극우주의

### 특집\_노벨문학상 그 이후

- 018 소영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한국문학
- 034 정은귀 노벨문학상 이후 어떤 빛을 기다리는 일
- 052 조은애 당신의 눈으로, 지금 여기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세시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겹쳐 읽기
- 084 조주희 종말시의 소동극 사이 노벨문학상을 둘러싼 모험

### 창작

- 시
- 116 강호정 오 초가 끝난 후 / 슬픔이 성육처럼
- 120 박선민 굴절을 살펴보면 / 뒤쪽 나이
- 125 박순원 르 / 농담
- 128 유선혜 복약지도문 / 기차가루
- 134 이경임 그렇게 함께 따로 / 사랑이란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까지
- 138 이문재 세봄 / 손톱하고 눈썹을
- 141 정한아 처치실 / 콧진상

### 소설

- 147 은현희 다정한 친구들
- 169 해이수 구보의 아들
- 산문
- 190 김동희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한국현대시를 읽다
- 202 노경희 구멍가게와 주인장 그리고 추억 한 자락
- 211 서정 20세기 러시아-소련의 인텔리겐치아⑨  
유신론 잔존의 수호자들  
바실리 젤롭스키, 세르게이 아베린체프
- 224 이승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기술발전의 그림자 속 애화되는 노동
- 234 이창재 죽음의 한 연구
- 243 전훈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문학을 읽는다는 것

### 리뷰

- 256 김성옥 해양 불교문명 교류사의 세부 지식도 『바다를 건너 왔다』(소명출판, 2024)
- 269 김재홍 집히고 펼쳐지고 되접히는, '운명' 『물외 극장에서』(갈논사발, 2024)
- 282 성현아 필화(筆畵)와 필화(筆花)의 역사 『한국 현대 필화사』(소명출판, 2024)
- 294 유성호 기원과 궁극으로의 서정적 귀환 『서정 가는 길』(상상인, 2024)
- 309 이경재 작은 땅의 사랑꾼들 『작은 땅의 아수들』(다산책방, 2021)
- 332 최기은 사랑을 사랑하라 『사랑의 각오』(소명출판, 2024)

### 탐방

- 350 곽형덕 죽음과 재생의 여로 리 고토미의 문학세계
- 369 리 고토미 단편소설 『아시아의 디아스포라』

### 정전의 재발견

- 408 인혜연 적의 심장부에서 적의 언어로 말하기 김사람의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 444 오민석 마르크스주의, 초월 불가능한 지평 프래드러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 읽기

### 이미지로 보는 근대

- 466 손지연 『대경성도시대관』, 윤상집·정미소·양조장 편 - 인천 편 ②

탐방

탐방

탐방

## 죽음과 재생의 여로

리 고토미의 문학세계

### 곽형덕

문학연구자, 명지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이 대담은 (2024년) 4월 말, 도쿄대학의 사카사이 아키토(#櫻人) 교수가 리 고토미 작가를 소개해주면서 2024년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이뤄지게 됐다. 5월 말 작가의 방한 일정 기간 동안 강연회 등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인을 받고 ‘일본의근현대문학’ 수업에서 대담회 형식으로 강연을 열었다. 작가와 주로 심야 시간에 메일을 주고받으며 주제 등을 정할 수 있었다. 리 고토미 작가의 한국어 번역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약간의 한계는 있겠으나, 이번 강연을 계기로 리 고토미 문학이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많은 독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곽형덕(이하 곱) 우선 작가 소개를 한 후, 대담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가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리 고토미 작가는 2017년 데뷔한 이후 언어, 국적, 역사, 정체성, 젠더, LGBTQ+에 관한 문체의식을 주제로 일본어문학 최전선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핫 한’ 작가입니다. 그러

면 이제 취지 설명과 소개를 끝내고, 대담 형식으로 리 고토미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질문은 크게 ‘일본어’, ‘작품 세계’, ‘LGBTQ+’로 나눕니다. 강연이 이뤄지는 곳이 일어일문학과이든 우선 일본어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어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있을까요? 일본어를 배운다고 해서 모두가 소설을 쓰지는 않으니깐요.

리 고토미(이하 리)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원 전차를 타고 출근하는 중이었는데 머릿속에 일본어로 ‘死シ’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죽는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떠올리고 한 편의 소설을 쓸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소설이 『독무』입니다. 이 소설을 써서 군조 신인문학상을 받아서 작가로서 데뷔하게 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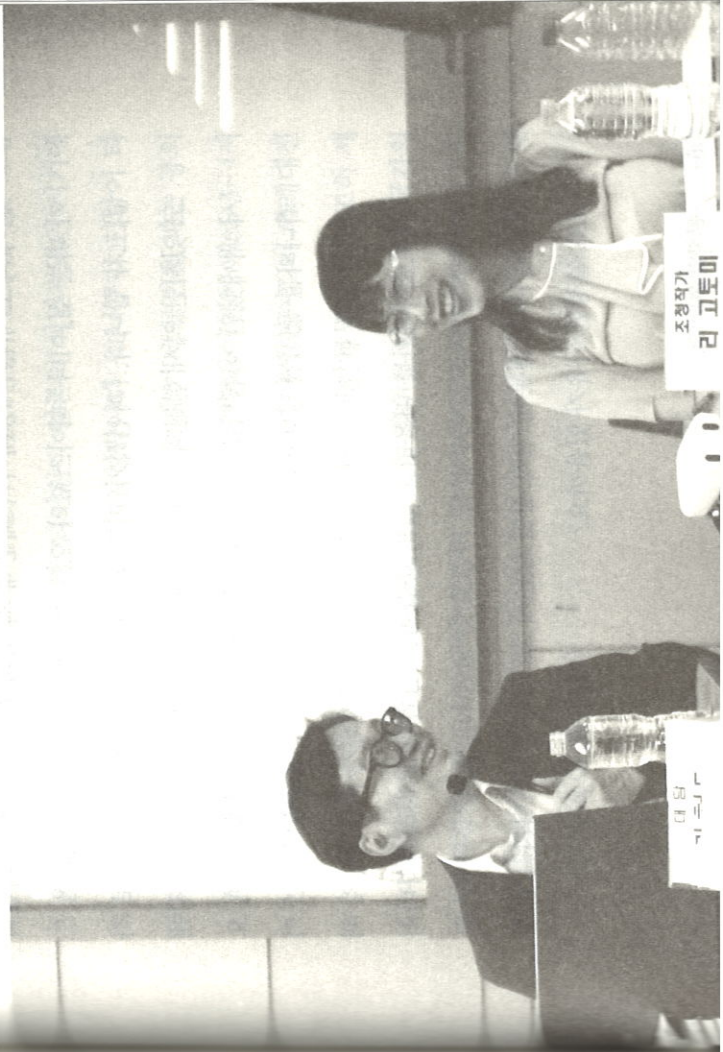
곱 모어인 한국어로도 소설을 쓰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모어가 아닌 일본어로 소설을 쓸 때,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리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수업이 한국에도 있지 않나요? 타이완에서 대학을 다닐 때 글쓰기 시간을 지는 특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는 것이 저는 즐겁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것은 모어가 아니라서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어떤

지 확신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맞더라도 표현상 자연스럽지 않거나, 혹은 보통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작가가서 일본어로 자연스러운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본어창작을 할 때 첫 번째 hurdle입니다.

곽 외국인이 일본어로 소설을 써서 이쿠타가와상을 받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타이완에서는 현재의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회성, 이양지, 유미리, 현월 등의 재일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소설을 써서 이쿠타가와상을 받은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식민지 시기의 일지만 아쿠가와상 후보에 올랐던 김사량은 일본어로 글을 써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꺼림칙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리 타이완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일본은 타이완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어서 조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1895년 무렵입니다. 그런 상태여서 당시 타이완 사람들도 일본어로 창작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쿠타가와상을 받은 작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기를 받은 작가는 몇 명이 있었지만요. 2024년 현재 타이완에서는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았던 것을 먼 과거의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입니다. 타이완에서 일본은 이제 하나의 외국으



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을 받은 것도 외국에 나가서 굉장한 상을 받았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저는 일본어로 소설을 쓰고 있지만, 모어는 중국어라서 제가 쓴 소설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타이완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5권의 소설을 그렇게 타이완에서 출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타이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한 명의 인간으로 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다거나 자랐다거나 국적이 어디인가는 관련 없이 제 자신이 습득한 일본어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을 대표해서 상을 받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자 작가로서 소설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 다음으로 '리 고토미 문학' 세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국어 번역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소개했던 『피안화가 피는 섬』이나 「디아스포라 오브 아시아」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안화가 피는 섬』은 가공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역시 현실의 역사를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내세웠던 '이름다운 일본'이나,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兩岸關係, 오키나와를 둘러싼 강대국과 식민주의의 역사 등이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와 관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피안화가 피는 섬』의 배경은 오키나와를 떠올리는 섬의 풍습이 등장합니다. 나라이카나(오키나와현과 야마구치현도 각지에서 전승되는 이특히 먼 세계라는 개념)나, 노로오키나와 무녀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 섬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리 『피안화가 피는 섬』은 오키나와와 상상적으로 가공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이야기의 설정은 니혼(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외국인 혹은 혼혈인 사람 등이 모두 추방되거나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쳐서 섬에 당도하고요, 한편 타이완에서도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타이완 사람들은 동쪽으로 도망쳐서 같은 섬에 도착한다는 설정입니다. 이런 설정을 살리기 위해 어느 지역을 무대로 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역시 오키나와 외에는 떠오르지 않더군요. 일본과 타이완의 국경은 오키나시마(与那国島)라고 오키나와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설에서는 오키나시마가 그 배경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오키나시마는 역사적으로 흥미롭다고 해야 할지 무섭다고 해야 할지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르지만 그런 곳입니다.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에 오키나시마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시마 사람이 타이완에 이완에 가거나, 타이완사람이 오키나시에 가서 물건을 파는 등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오키나시마와 타이완은 배로 3~4시간이면 갈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1949년 쯤에는 두 섬 사이에 국경이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교역은 이후 불법적인 밀수 행위로 단속됩니다.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그동안 해왔던 일상적인 교역이 갑자기 불법적인 행위가 된 거죠. 그런 억울스럽기까지 한 상황이 이 소설을 쓸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과 일본문학을 이야기 할 때 ‘오키나와문학’은 흔히 ‘우치닌쥬’ 즉 오키나와 사람이 쓴 문학의 의미에 왔습니다. 제주문학을 제주도 사람이 쓴다는 감각과도 비슷합니다. 당사자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키나와문학은 오키나와사람만 쓸 수 있다는 고정 관념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신도 준조(真藤順文)의 『보물섬(寶島)』, 다카야마 하네코(高山羽根子)의 『슈리의 말(馬)』이 나오키상과 이쿠타가와상을 받는 등 기존의 개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리 당사자성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여성문학은 여성만, 오키나와문학은 오키나와 사람만, LGBT문학은 LGBT만 써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읽든 쓸 수 있다는 식도 곤란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나치게 스테레오타입에 가득 찬 표상을 쓴다거나, 현실에 존재하는 편견을 작품에서 재생산하는 방식의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성에 그렇게까지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곽 제가 읽은 논문에서 『피안화가 피는 섬』이 『걸리버 여행기』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지적하더군요. 이 소설은 태풍이 지나간 후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눈을 뜬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리 『걸리버 여행기』를 의식한 적은 없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작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소설이지만 저는 『1984』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디스토피아 소설을 써보고자 했고요. 『피안화가 피는 섬』에 등장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입니다. 외국인들 전부 추방하거나 살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만을 그려도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디스토피아의 비꼴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세계를 그려보려 했습니다. 제 소설에 등장하는 섬은 디스토피아인지 유토피아인지 잘 알 수 없는 세계이며 그것이 소설의 흥미를 자극한다고 봅니다.

곽 시간을 염수하다 보니 제가 조금 재측을 했네요. 생각한 것보다 시공간에 여유가 있으니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피안화가 피는 섬』은 여성이 권력을 쥐고 있는 세계입니다. ‘여성어(女權)’나 ‘역사’는 이 소설에서 여성의 권력과 이어지며, 노로가 된 후 우미와 요나는 이를 다쓰쓰에게 전해줘도 필지를 고민합니다. 남성이 권력을 잡고 세계를 망쳐놓았었기에 그들에게 다시 언어와 역사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소설에 끝에 이르면 우미와 요나는 약속한대로 노로가 된 후에 이를 친구인 다쓰쓰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설정한 이유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리 이 소설에는 세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여성어, 일본어, 히노모토언어. 이렇게 다른 세 가지 일본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히노모토

언어는 현대 일본어에서 한자와 한어를 모두 제외한 언어입니다. 히노토언어에서는 한자에서 파생된 말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타카나로 쓰여진 일본어라고 합니다. 현대의 일본어, 중국어, 류큐어가 모두 섞인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읽으며 혼동을 느끼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언어인 여성어입니다. 이 여성어는 현대 일본어와 거의 흡사합니다. 현대 일본어는 소설에서 여성만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성어는 소설에서 역사를 말할 때 쓰이는 언어입니다. 여성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는 또한 여자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수 천 년 동안 역사를 남성이 책임져 왔습니다. 왕조는 대부분 남성의 역사입니다. 물론 과거 일본에는 여성이 왕을 하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남성이 만들고 전해온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여성의 역사를 쓰자는 움직임이 페미니즘에 있었습니다. 그런 발상을 빌려와서 실험해 본 것이 이 소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실 세계는 남성 중심이지만 섬에서는 여성이 중심이라는 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역사의 중심이 된 섬 뒤편에서는 새로운 억압이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관 「디이스포라 오브 아시아」의 끝부분에 ‘고향과 이향을 둘러싼 이야기’가 상당히 슬프게 나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사는 이향이 곧 고향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며, 소설에서 주인공 ‘나’에게 도쿄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LGBT 또한 소수자로서 ‘고향을 쉽사리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읽히기도 합니다. 작가님에게 ‘고

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공과 같이 현재 살아가는 ‘도쿄’가 고향 일까요?

리 이 소설을 2017년에 썼습니다. 지금<sup>2023년 5월</sup>으로부터 7년 전의 세 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됩니다. 그가 내세운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입니다. 올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더군요. (웃음) 미국이 가장 강력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구호입니다. 미국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많은 이민자가 있지만 트럼프는 그런 이민 등을 싫어했습니다. 백인이 가장 우수하다는 식의 사상입니다. 한편 그런 식의 우열을 가르는 사상은 일본이나 타이완 등에도 존재합니다. 일본에도 외국인을 싫어하는 배외주의적인 사상을 품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정권 시대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거나 유학을 떠나는 것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이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동의 시대라고 해도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동의 시대 특유의 고독감 같은 것을 이 소설에 담으려 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타이완에서 일본으로 간 여성, 중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여성, 중국 사천성 출신으로 북경으로 가는 여성이 그들입니다. 세 여성 모두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세 여성은 인생관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공통점은 원래 있던 장소에서 떨어져서 깊은 고독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여성 중 두 명이 레즈비언입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제 감각입니다. 세상에는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흑인이 그렇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차별을 받거나, LGBT도 그렇고요. 다만 LGBT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흑인과 비교해도 더욱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흑인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 차별을 받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LGBT는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말 할 수 없고요. 용기를 내서 말하면 너를 그런 식으로 키운 기억은 없다는 말을 듣거나, 넌 내 자식이 아니라 너는 식의 말을 들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LGBT에게 고향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들 중에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감각을 지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고향은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노력을 해서 손에 넣은 장소,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친구들도 그곳에 있어서, 도쿄가 제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심각한 질문을 많이 드린 듯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가벼운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 영향을 받았거나, 좋아하는 작가가 있을까요?

리 좋아하는 작가는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문학 중에서는 무라타 사키(村田沙耶香)는 개인적으로도 친하며 흥미로운 작품이 많아서 좋아합니다. 또한 지명도는 낮지만 마쓰우라 리에코(松浦理恵子)도 있습니다. 1980~1990년대부터 여성의 시점에서 채슈얼티를 다룬 작가입니다. 최근 한국 페미니즘문학이 일본에서도 인기입니다.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 민지형의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자친구』를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꽤 이제 강연회의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 합니다. 다시 심각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작가님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역인 LGBTQ+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이스포라 오브 아시아」의 주인공은 타이완에서 ‘태양화운동(해바라기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으로 간 것으로 나옵니다. 학생들이 타이완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전체 하에서 ‘해바라기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리 타이완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타이완도 예전에는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어서 경찰이 밤늦게 들이닥쳐 잡아가서 시체로 발견되는 민주화 인사들이 있었습니. 타이완이 민주화된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데모를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냉전 시기의 중국은 소련과 함께였고, 타이완은 미국 편에서 있었습니. 한국과 북한이 상황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통일하고 싶어합니

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타이완에도 전쟁을 대비한 무기가 많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경우는 국력과 군사력도 두 비대칭적입니다. 타이완인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운동이 일어난 것은 2014년입니다. 당 시 중국에 비교적 친화적이었던 여당 국민당이 중국과 서비스 무역협정을 맺으려 했습니다. 타이완인은 그런 협정을 맺고 나면 중국 자체가 타이완을 완전히 지배해서 표현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협정을 철회하라고 항의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바라기 학생운동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이들은 국회를 3주 동안 점거하며 타이완의 사회 변혁을 이끌어냈습니다.

▶ 왜 해바라기운동이라는 명칭이 붙었는지도 궁금하네요.

▶ 국회점거 당시 밖에 있던 시민들이 물과 식품 등을 국회로 보냈는데, 그 안에 해바라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국회 앞에 해바라기를 장식해서 그것이 운동의 상징이 됐고요. 어두운 밤이 끝나고 해가 다시 떠오를 거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 타이완은 2019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됐습니다. 동본에도 동성 결혼 여부가 기재되고요. 작가님의 소설에는 동성애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살기 좋은 곳은 일본이 아니라 타이완이 아닐까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하지만

「디이스포라 오브 아시아」를 읽어보면 타이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먼 친척까지도 결혼에 관여하는 식으로요.

▶ 이것은 비단 타이완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적인 전통도 있고 해서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시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도 있었고요. 그렇기에 동성애는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강했습니다. 2013, 2014년 무렵 동성혼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전통적인 가족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까지 해서 동성혼을 하면 에이즈가 만연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나라가 망한다는 선전까지 했습니다. 2014년 해바라기운동이 일어났고, 2016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비교적 리버럴한 민진당이 집권했고, 2017년에 동성혼을 허용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부에서 2년 내에 동성혼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2019년에 동성혼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이미 합법이 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트랜스젠더를 공격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 한국 사회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젠더 이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페미니즘운동
 은 문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작가가 탄생했습니다.
 리고토미 문학의 세계는 언어, 국적, 역사, 정체성, 젠더 등 넓은 영
 역에 걸쳐 있지만 그 중에서 젠더 이슈는 가장 중심적인 축입니다.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본의 페미니즘 운동은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문화와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가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생활하며 느꼈던 것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받는 느낌은 있지
 만 어디까지나 주변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리 일본에서도 많은 운동가들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일본의 정치
 입니다. 일본 정치는 정권 교체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보수파가
 계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파가 싫어하는 정책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하면 부부동성을 해야
 합니다. 양쪽 어느 성을 따라도 되지만 99% 이상이 남성의 성을 따
 립니다. 부부동성 문제나 동성혼과 관련하여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
 며 진항적인 결과가 나온 적도 있지만 문제는 보수파 우위의 일본
 정치입니다.

과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

다면 두 세 명 정도만 받아봤으면 합니다.

김민재(영어문과 학생) 당사자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이야기도 있지만 당사자라서 스테레오타입에 사
 로잡혀 참신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 당사자는 디테일을 잘 알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기 쉽습니
 다. 하지만 당사자도 A, B, C, D 등 여러 명이 있습니다. A는 B, C,
 D의 문제를 잘 알지 못 하고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
 다. 어떻게 공통점을 도출해서 쓸 것인가에 집중하면 좋을 겁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스테레오타입에 빠지기 쉽다는 논리는 조금 맞
 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연경(문예창작과 학생) 조지 오웰의 『1984』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회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피안화가 피는 섬』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의 경계선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시고 쓰셨
 나요?

리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제 소설을 읽고 현재의 사회를 돌아
 보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세계가 소설 속에 있지만, 그곳은 확장성도 없고 연계성도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는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재산은 주로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그런 혈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관념이 사회 안에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 소설에는 그런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이라 해도 타인과 함께 키워도 문제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화된 사회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는 왜 이렇게 이뤄져 있는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상상해 보기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김두영(어린문과 학생) 소설의 영감은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리 여러 곳에서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듯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가와 이어져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겠죠. 우리는 사회 안에서 다양한 것을 바라보고 제도나 조직에 위화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건 왜 그렇게 짜여 있는 것인가? 왜 다른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가? 등의 의문을 계속 품다보면, 왜 나는 태어났는가? 이런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존재의 근원, 사회의 부조리, 위화감 등이 제 영감의 근원입니다.

무기명 죽음이라는 단어를 실마리로 삼아서 소설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소설을 쓰실 때 어떤 감각을 품고 쓰시나요. 제가 문예창작과에 다니며 작품을 쓰고 있어서 특히 공감합니다.



## 아시아의 디아스포라

리 질문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는 원동력에는 고통, 슬픔,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품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작품 안에서 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냉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에 깊이 추를 내린 후 객관적으로 응시해서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이미숙(일문과 교수) 일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서 살면서 현재 위치에 오시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사회로 나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리 사회에 나가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여성이라서, 마이너리로서, 돈이 없어서, 병이 있어서 괴로움에 직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에는 부조리한 일이 많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점은 점은 사회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30여 년 전은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도 없고 책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시대도 사회도 변화해 갑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깊이 생각해서 행동한다면, 자 신만의 장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Q**

1

네모꼴로 도려낸 듯 한 하늘은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어둑어둑했다. 내려다보면 물결 하나 없는 구름이 덮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손이 닿을 것 같지 않은 먼 하늘과 하나의 선으로 만난다. 그 선은 붉은색인지 보라색인지 알 수 없는 색깔로 이성이 아닌 곳을 향한 입구로 보일 만큼 신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런 풍경에 넋을 놓고 있다가 나는 뉴욕에서 류단(劉團)과 나섰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류단의 외모는 여전히 보이시했다. 네모난 얼굴에 검은테 안경, 고슴도치 같은 단발에 작은 목소리는 마치 순진한 남자 중학생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말 구석구석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그런 옛됨이 아니라 니힐리즘(虛無主義)이나 시니시즘(犬儒主義)으로 보이는 냉소였다.

“진리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진리라고 믿고 싶은 마음의 집합일 뿐이야.”

그런 식으로 내뱉은 그녀의 말은 그 부분만 떼어서 보면 마치 중2병 같은 생떼로도 느껴지지만, 정면에서 반론을 하면 말이 꼬리에 꼬리를